

다시 흔들리는 기술주 투자심리, 중동 무력갈등 재확산에 증시 혼조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hyseong@ls-sec.co.kr

반등 하루만에 다시 꺾인 기술주 투심, 엇갈리는 월가의 시선

- 미 증시는 DOW +0.17%, S&P500 -0.26%, NASDAQ -0.97% 혼조. 대부분 업종 상승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술주, 에너지 업종 약세가 증시 부담 ↑, VIX +5.0%
- 웰스파고는 현재의 반도체 및 AI 랠리가 끝난 것은 아니나, 밸류에이션 과열에 따른 기술적 숨고르기 국면으로 진단. 머피앤실베스트는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기관의 현금마련용 기술주 차익실현 수요 확대에 해석
- 다만, UBS는 여전히 AI 낙관론을 지지. AI 인프라 및 전방지출 규모는 여전히 견고하며, 단기 조정은 오히려 강력한 저가 매수 기회가 된다고 주장

국제유가 하락, 그러나 낙폭 되돌린 중동 상황

- 앞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군사공격을 중단 및 미-이란 휴전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유가 WTI 기준 \$90 선 밑으로 하락. 그러나, 이란의 미군 아파치 헬기 격추, 이스라엘의 레바논 티레 지역 공습으로 중동 군사긴장 재차 확대됨에 따라 낙폭 축소하며 반등
-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기조를 이어가고자 군사행동 자제를 촉구해왔으나, 미군 헬기 격추에 대해서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 공격에 나섰다 발표

AI 스타트업과 빅테크의 경쟁적 자금조달 양상

- 6/12 예정된 스페이스 X IPO 에 이어, 오픈 AI, 앤트로픽이 연달아 Confidential S-1(draft IPO) 서류 제출. 퍼플렉시티 또한 2028년 상장 계획을 발표. 앞서 구글은 AI 인프라 자금 조달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847억 달러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등 경쟁적 CAPEX 투자와 더불어 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
- 구글의 경우 버크셔해서웨이 등이 유증에 참여했다는 부분으로 우려 일부 불식했으나, 시장은 유동성 피크아웃 우려로 해석하기도. 새틀라이트 리서치는 빅테크와 거대 AI 스타트업이 동시에 수십~수백억 달러 자금을 공모하는 것은 고금리 장기화 전 마지막 유동성 막차를 타려는 심리로 해석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MU	마이크론	-1.4%	UBS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매도세를 기회라 평가, 골드만삭스(\$400→\$900), 웰스파고((\$550→\$1,220) 등 주요 IB들의 목표가 상향 소식에 장 초반 상승 출발. 다만 마이크로소프트·오픈AI를 고객사로 둔 AI 인프라 개발사 크루소가 와이오밍주 1.8GW급 대규모 데이터센터(프로젝트 제이드) 건설을 고객사 요청으로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에 AI 인프라 수요 둔화 우려 자극되며 주가 하락
TSLA	테슬라	-3.0%	네덜란드 FSD 안전 데이터(총돌 사고 3.5배 감소) 발표 및 캐시우드 로보택시 시승 영상 공개 등에 장 초반 상승 출발했으나, 스페이스X IPO에 따른 기술주 내 자본 이동 우려 불거지며 주가 하락 마감. 또한 차세대 로드스터의 시연 일정이 8월로 재차 연기되며 제품 로드맵 이행 우려 가중. 한편 머스크CEO는 스페이스X IPO 앞두고 테라팜 청사진 및 AI1 위성 렌더링이미지, 기가셋 AI 데이터센터 위성용 태양광 패널 시설 등 공개
GOOG	알파벳	+0.3%	구글이 스페이스X로부터 엔비디아 GPU 약 11만 대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임대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체결. 계약 기간은 '29년 중반까지이며, 구글은 스페이스X에 매월 \$920M 지급 예정. 구글 대변인은 이번 계약이 자사의 AI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 밝힘
V	비자	+1.7%	미 법원 카드결제망 수수료 관련 소송중인 가맹점주들과 \$38B 규모 합의안 예비 승인. 합의안에 따라 5년간 수수료를 10bp 인하 및 가맹점의 고수수료 프리미엄 카드 거절·추가 수수료 부과 권한 허용
NUVL	뉴베일런트	+39.3%	영국 대형 제약사 GSK가 동사를 \$10.6B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폭등